

영광군, 폭설에도 꺾이지 않는 동계 축구 스토브리그 열기

전국 각지서 참여...오는 12일까지 진행 고등부에 이어 초·중등 동생들로 이어져

영광군(군수 강중만)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초·중·고 동계 축구 스토브리그(이하 '리그')가 한창이다. 첫 출발은 고등부였다. 작년 12월 26일 영광스포티움 전용구장 등에서 진행된 고등부 18개 팀 450명의 리그는 지난 1월 20일, 26일간의 대

장정을 마쳤다. 그리고 형들이 내어준 자리를 전국 초·중등부 동생들이 이어받은 것이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작된 초·중등부 리그는 스포티움 축구장 4개 면과 관내 축구장 1개소에서 초등부 17팀 425명, 중등부 14팀 35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2월12일

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영광군에 따르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월 24일에 갑작스러운 폭설로 리그의 연기를 고려해야 할 정도로 경기장에 폭설이 내렸으나, 영광군청 스포츠산업과에서 새벽 잠을 반납하면서까지 제설작업에 매달린 끝에 예정된 일정을 맞출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또한, 초·중등부 리그는 그 시로부터 폭설로 인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참가 선수들이 하루에 구장별

나주시, 광주전남연구원 논쟁 입장 표명

나주시가 광주·전남시의회를 통해 촉발된 광주전남연구원 재분리 논쟁과 관련해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염원하는 시·도민의 위대한 합의 정신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시는 윤병태 시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그간 수많은 결실과 노력들이 한 순간 물거품이 될 수 있는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연구원 재분리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윤 시장은 “광주전남연구원은 지난 2015년 양 시·도가 이뤄낸 합의 정신의 결과물이자 혁신도시 성과 공유 등 미래 상생발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상징적 아이콘”이라며 연구원 존립에 의미를 부여했다. 윤 시장은 특히 “정부에서 올해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어 어느 때보다 시·도 상생을 위한 긴밀한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 재분리를 또다시 운운하

담양군, 종합청렴도 2등급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급 기관의 종합적인 청렴수준을 평가해 부패취약 분야 개선 등 반부패 노력을 촉진하고 청렴인식과 문화 확산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평가는 민원인과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패인식과 경험을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는 ‘청렴체감도’와 기관별 반부패 노력의 성과를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그리고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종합해 산정한다.

담양군은 ▲청렴서한문 발송 ▲청렴실천 결의대회 실시 ▲청렴간담회 운영 ▲맞춤형 반부패·청렴교육 추진 ▲정백-e 상시모니터링 및 자기진단 제도 운영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다.

그 결과 전국 82개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평균 점수보다 6점이나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4년 연속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해 다음 평가에서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종연기자



장성군과 NH(엔에이치)농협은행 장성군지부, KT(케이티)전남전북고객본부가 최근 스마트 농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한중 장성군수, 장흥모 지부장, 김진철 본부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농협-KT, 스마트농업 발전 위해 맞손

장성군과 NH(엔에이치)농협은행 장성군지부, KT(케이티)전남전북고객본부가 최근 스마트 농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한중 장성군수, 장흥모 지부장, 김진철 본부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스마트 농업은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팜에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 시스템이다. 장성지역에 조성된 스마트 팜은 52개소 22ha(헥타르) 규모로 딸기, 포도, 토마토, 새싹삼 등 다양한 작물을 길러내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초고속 인터넷 시설이 농촌에 구축되면 스마트 팜 확대는 물론 도난 방지를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 농촌 통신 복지

향상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밖에 산지 유통 조직화, 정보통신기술(ICT) 및 무인환경관리시스템 지원도 협력할 계획이다. 장성군은 올해 27억 4천만 원 규모로 스마트 팜 기반 조성에 관한 10개 지원사업을 추진해 시설원예 현대화,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신소득 레몬 특화단지 조성 등에 나선다. /유광중기자

화순군,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 모집

혈압·혈당 등 건강위험요인 가진 성인 대상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 100명을 2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모바일 헬스케어’란 혈압, 혈당 등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성인을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과 스마트밴드(손목 활동량계)를 이용해 6개월간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우선순위 대상자는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 경험이 없는 신규 대상자로 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5가지 건강위험요인을 많이 보유한 자로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이미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 중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스마트밴드(활동량계 등)를 무상으로 지급받게 되고, 6개월(24주) 동안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전문팀(의사, 코디네이터,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으로부터 개인별 식습관과 운동 상담 등 원격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과 보건소 누리집에 게시돼 있으며, 참여 희망자는 화순군보건소 건강증진팀(061-379-5370)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남호경기자

생명의 땅 강진 하늘과 바다와 강, 들이 만나는 강진
강진에서 나오는 귀한 농수산물을 드셔 보세요.

강진군과 초록믿음이 추천하는 강진 건강10대 농식품

강진군은 3가지를 약속합니다

- 01 신선**
▶ 청정지역 강진에서 직접 생산
- 02 신속**
▶ 농업인 직접 택배발송
- 03 신뢰**
▶ 강진군

**믿고 먹을 수 있는 맛!
착한 가격!**

강진군 초록믿음 직거래 지원센터
http://www.gangjin.center